

사건사고

실종 지적장애인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경찰·소방, 인력200명 구조전 투입

순천에서 실종된 60대 지적장애인이 사흘 만에 마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순천시 해룡면 야산에서 A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집을 나선 뒤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지난 7일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200여명과 구조견을 투입해 자택과 3km가량 떨어진 야산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외출할 당시와 동일한 옷차림이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박경식 기자

상대 운전자 망치로 위협

경찰, 30대 불구속 입건

운전 중 맞은 편 차량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한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둔기를 휘둘러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전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골목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 운전자를 망치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임의동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두 운전자를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종찬 기자

광주 학생들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

광주지역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이고, 교사는 학생들 생활지도가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이 같은 문제로 이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품수수금지 정책에 대해 90% 가까이 긍정평가를 내렸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69개 초·중·고교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 5,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2018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중 ‘학업’이 44.2%로 가장 높았다. 2년 전인 지난 2016년 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미래(진로)불안(40.6%)과 외로움(23%)이 뒤를 이었다.

학업 또는 성적스트레스는 일반고 학생들이 67.8%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불안감 역시 일반고 학생들이 68.7%로 최고였다.

교사 “학생 생활지도 가장 힘들다” 응답 시교육청, 2018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

반면, 학교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60.9%)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시간(22.4%) ▲동아리 활동(7.7%) 순으로 조사됐다. 교과 수업은 3.5%에 그쳤다.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은 55.2%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VI(2016) 결과인 전국 평균 53.6%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2014년 65.6% ▲2016년 59.5% ▲2018년 55.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장애희망직업을 결정한 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전문직(문·예·체, 교육, 보건, 종교, 공학, 과학 등)이 69.8%로 가장 많았다.

교사가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생활교육의 어려움’(72.4%)이었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연수도 ‘생활지도 및 상담’이었다. 이어 ‘행정업무’(70.7%)와 외부 민원(50.8%), 교권 침해(50.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가장 많이 참여한 연수도 ‘생활지도 및 상담’ 40.2%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 교사는 10명 중 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교사를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교사로 31.3%나 됐고, 이는 지난 2016년 22.0%보다 9.3% 더 높아졌다.

교사가 학급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우관계(28.4%)로 나타났고 ▲질서 및 예절교육(20%) ▲학교폭력예방(19.6%) ▲안전사고 예방

(15.1%) ▲학습지도(8.1%) 순이다. 수행평가 확대는 61.6%의 교사가, 논술형(서술형) 평가 확대는 50.4%의 교사가 각각 찬성했다.

교사별 평가 확대에 대해선 43.0%가 동의했다.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45.4%로 절반을 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2.3%로 가장 낮았다.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44.6%에 달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39.1%로 조사됐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체 교사 중 66.5%가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교권보호 지원 확대(16.3%)’, ‘교원 치유 지원 강화(6.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2명은 자녀 체벌 경험이 있고, ‘거짓말을 했을 때’ 체벌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참여 기회는 학부모 총회가 45.6%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대상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45.1%가 ‘자녀와의 대화법’을 들었다.

학부모 89%는 시교육청의 ‘급품수수 금지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정립 정책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92.7%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생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등 9개 영역 64문항·교사는 근무환경과 생활지도 등 8개 영역 41문항·학부모는 사교육과 학교 교육 만족도 등 6개 영역 38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초등 5~6년·중학 1~3년·고등 1~2학년년을 대상으로 지역별·설립유형별·성별 표본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9%에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이강수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은 “연구 결과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미흡한 부분은 담당 과를 비롯해 교육청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여고 성희롱·성추행’ 수사연기 검토 경찰 “원하면 수능시험 이후…학습권 보장”

교사 여러 명이 제자 180여 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광주 한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대학수능능력시험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진술 청취를 학생이 원할 경우 오는 11월 15일 수능시험 이후로 연기한다.

경찰은 여경 10명을 투입해 지난 6일부터 고3 학생 36명으로부터 경찰서 외부 공간에서 피해조사를 받았다. 가해 교사 소환은 피해학생 조사가 끝나는 11월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조사를 토대로 가해 교사 범위를 정해 출석을 통보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종찬 기자

축사허가 미끼 돈 받은 사이버 언론사 대표 구속

자신의 직위를 내세우며 축사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급품을 챙긴 지역신문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영암경찰서는 축사 인허가를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지역 신문사(주간지) 대표 씨 A(61)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9월 축산업을 하려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인사비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군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과 과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며 겁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생수로 더워날리자 연일 폭염이 이어진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관계자와 지역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민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김태규 기자

폭염에 온열질환자 3,500명 넘어

올여름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500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8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

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536명이고 이 가운데 43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자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

친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1,016명이 나왔고,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1,101명이 발생했다. 이번주 3일(5~7일) 동안에는 282명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성별로 보면 남자 2,566명, 여자 970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연남뉴스

1년전 헤어진 애인 찾아가 폭행

○...1년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과거일을 사과하겠다고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씨(24)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치평동 한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1년전 헤어진 전 여자 친구 임 모씨(26)에게 1년전 잘못을 사과하겠다고 40분동안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무슨 바람이 들어 헤어진 애인을 찾아왔다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까지 휘둘렀는지 모르겠다”며 “헤어진 후에는 서로 쿨하게 잊어야하는데 미련이 결국엔 화를 자초했다”고 혀를 끌끌.

/김종찬 기자

상가원룸매매 {신축전문}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1층 ★ 상가2칸 ★

2층 ~ 3층 (원룸 9개) (투룸 2개)

4층 (주택) ★ 공원앞 전망 최고 ★

보 9천 / 월 600만(응3억)

매가 9억3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1층, 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합16개) 월세 590만 ▶ 매가 8억 7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3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안집1개)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응3억5천만가)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 300만

-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승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승탄역 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응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상가1개) ▶ 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